

# #19-141 3차 산업혁명의 기억



**최도연**  
(02) 3772-1558  
doyeon@shinhan.com

**나성준**  
(02) 3772-3845  
sungjun.na@shinhan.com

## IT 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

美-中 분쟁이 전세계 IT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I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헤게모니를 장악할 업체는 IoT, Big Data, AI, 5G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은 미국 FAAMG(Facebook, Apple, Amazon, Microsoft, Google), 중국 BAT(Baidu, Alibaba, Tencent) 등에 주목하고 있다.

## 3차 산업혁명에서 초기 시장을 장악한 IT 업체들이 장기 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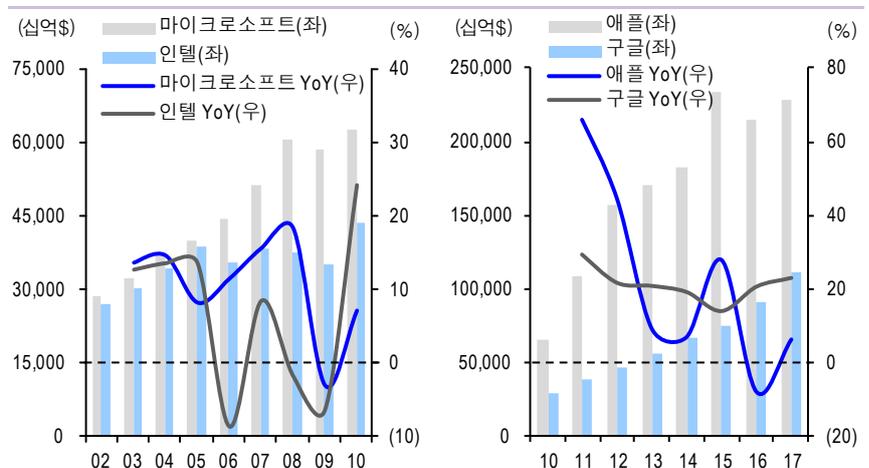
3차 산업혁명 초입을 이끌었던 PC 출하량 추이,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던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에서 서버 수요 증가가 단기 현상이 아닐 것을 예상할 수 있다. PC 시대의 Intel과 Microsoft, 스마트폰 시대의 Apple과 Google은 패러다임 변화 초기 시장을 이끌었고, 결국 IT 시장을 장기 집권했다.

##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용 반도체 구매는 중장기 지속될 전망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쟁 초입에서 인터넷 기업들의 CAPEX 증가는 당연하다. 데이터센터 투자는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들은 매출 증가와 이익률 상승의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Amazon의 AWS(Amazon Web Service)는 50% 내외의 매출 증가율과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지속 시현하고 있다. 게다가 후발업체들은 아직 Amazon에 한참 뒤져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구매를 지속할 전망이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한다.

PC 시대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및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 구글 매출액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도연, 나성준). 당사는 상기 회사(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당사는 상기회사(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상기회사(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